



작성자

초등학생



책제목

어린이를 위한 배려

학생 작성 글

- ▶ 주제 : 배려
- ▶ 저는 배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① (배려란 책의 줄거리는) 예나란 아이가 6학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학교에서 임원선거를 하는데 예나를 1학년때부터 회장, 부회장을 놓친적이 없어 이번에도 될줄 알고 자신감이 있는 얼굴로 가서 투표를 다 하고 보니 예나를 회장이 되지도 않았고 부회장도 되지 않았다. 임원선거가 끝나자 각 부 부장들을 뽑았는데 예나는 바른생활부 부장이 되었다. 예나는 바른생활부 부장이 맘에 안 드는지 집에가서도 부모님께 통명스럽게 말을 하였다. 그 다음날 학교에서 가서 바른생활부 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석 달안에 뭔가 눈에 띄는 일을 (하지) 해야 바른생활부가 없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바른생활부는 없어진다고 하였다. ② 그런데 어느날 5-1반 바른생활부장인 예림이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예림이네 반 수빈이라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우가 있는데 학교안에서는 밀면서 다닐 수 있는데 등하교는 엄마의 도움없이 할 수가 없다고 메일이 왔다. 그래서 바른생활부장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밀어주기로하기로 하였다. 예림이는 그런일을 하면서 점점 (바뀌어 가고) 배려를 할 줄 아는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이다.

학생 작성 글

- ▶ 내가 만약 예림이었다면 바른생활부장 같은건 아예 하기 싫다 말을 하였을 것 이다. 그리고 처음엔 예림이가 회장,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바른생활 부장이 되었을 때는 예림이가 정말 안 되보였다. 그렇지만 나는 이 책을 읽 어가면서 예림이가 선거에서 떨어진게 잘 났다고 생각한다. 그 이유는 만약 예림이가 회장이아부회장이 되었다면 잘난 척은 갈 수록 더 심해질 것 이고 아이들에게 자기 맘대로 일 시키는 것 도 더 늘어날 것이다. 그러지만 예림 이가 선거에서 떨어져 바른생활부장이 되어 몸이 불편한 아이를 도와가면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할 줄 알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아 예림이가 정말 존경스럽 다. 나도 그런 성격을 고치려 노력은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친구들에게 배려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. ④ 지금이라도 예림이 처럼 성격도 고치 고 남에게 배려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겠다.



첨삭지도

◆ 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

- ▶ 000 학생은 대상 도서에 대한 줄거리를 1문단에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. 예나가 바른생활부 부장이 되는 과정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적었습니다. 개요를 짜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앞부분에 줄거리를 길게 쓰게 됩니다. 이 글도 예나가 바른생활부 부장이 되는 과정이 길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짧게 요약했습니다. 대상도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잘 분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에 어울리는 내용을 골라 분석해야 합니다.

◆ 창의적 사고력

- ▶ 이 글은 독서감상문입니다. 독서논술은 내세우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. 이 글은 주로 1문단-줄거리, 2문단-내가 예림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 부분입니다. 독서논술에는 줄거리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만 간단하게 씁니다. 또한 '내가 만약 ~라면'과 같은 표현은 한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므로 설득력이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. 따라서 독서논술 면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말할 수 없습니다. 독서감상문이라고 본다면 2문단에 000 학생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줄거리를 더 간단하게 줄이고 2문단 내용을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다면 좋은 독서감상문이 될 것입니다.



첨삭지도

◆ 문제 해결력

▶ 이 글은 독서감상문이라 서론-본론-결론의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. 더구나 1문단은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이라 독서논술의 본론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. 2문단을 바탕으로 주장을 찾아내서 독서논술로 다시 써봐야겠습니다. '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준다'는 주장은 어떨까요? 회장 선거에서 성공했다면 잘난 척하고 자기 맘대로 하기 쉽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2문단 내용을 풀어쓰면 되겠습니다.

◆ 문장력 및 표현력

▶ 글을 급하게 쓴 흔적이 많습니다.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많이 틀렸고 문장의 호응 관계가 많이 어긋났습니다. '~을, 를' 표현을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. 표현력과 문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 쓰는 건 아닙니다. 한 번 쓴 글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글을 쓰면 며칠 지나서 다시 읽어보며 고쳐야 합니다. 아무리 뛰어난 작가도 한 번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.

▶ ① - 문장을 너무 길게 써서 앞뒤 호응관계가 맞지 않고 지루하게 되었습니다. (6학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학교에서 임원선거를 하였다. 예나는 1학년 때부터 회장, 부회장을 놓친 적이 없어 이번에도 될 줄 기대했다.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얼굴로 투표를 했다. 그런데 투표 결과, 회장이 되지도 않았고 부회장도 되지가 않았다.)

▶ ② 역시 문장이 너무 길습니다.

▶ - (그러던 어느 날 5-1반 바른생활부장인 예림이에게 이메일이 왔다. 예림이네 반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수빈이라는 장애우에 관한 내용이다. 수빈이가 학교에서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등하교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한다.)



첨삭지도

- ▶ ③ ()한 부분은 생략합니다.
- ▶ (배려란 책의 줄거리는) - 독서감상문이라 해도 이 부분은 빼야 합니다. 이 말을 쓰지 않아도 줄거리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.
- ▶ (하지) (바뀌어 가고) - '해야, 바뀌어가는'이라는 내용이 되풀이되므로 생략해야 합니다.
- ▶ ④ 이런 결심은 글에서 습관처럼 쓰는 말입니다. 독서감상문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. 많은 것을 느꼈다는 표현, 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는 표현 따위는 좋지 않습니다.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쓰면 더 좋습니다. (바뀌어야겠다. - 바꾸어야겠다고 씁니다.)

총평

- ▶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써보세요. 그리고 글을 꼭 다시 읽어보고 고쳐보세요. 그럼 글 쓰는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.